

고린도전서(1)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 본문

고전 1:1-9

■ 시작 찬송가

197장(통 178장)

■ 헌금 찬송가

204장(통 379장)

▶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이자 은사이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17.11.29. 수요기도회 중)

복음의 회복과 교회의 하나됨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으로 교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교회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고, 훈련받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예수님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부와 은사가 많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속은 많은 당파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당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 편에 서서 누구 파라고 말했고, 세례를 준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당파 지음과 분열의 상황을 바라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고전 1:11-13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 은사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은사로 인해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내 영적 수준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전 1:5-7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방언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사와 방언으로 성령의 능력을 평가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오직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이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십니다.

고전 14: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2) 부유했던 교회

고린도전후서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역, 여행, 관광이 발달해 있던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도 이곳에 있었으며 사치와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진 부로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살 가능성이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보하는 일을 직무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후 9: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역지가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정말 중요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연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섬기는 은사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후 9:12-13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 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많은 연보로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당파를 나누고 서로를 적대하며 편을 갈라 싸우는 일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또한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하나님께 더 복 받은 사람이라며 자랑하며 다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고전 1:2-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선한 마음을 스스로 갖고자 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선한 마음과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화목하게 하는 마음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도는 더불어 화목하며,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롬 12:18-19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고린도는 이스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승배하는 승자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승자 문화가 뿌리 박혀 있었고 남보다 승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승리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사와 부와 선함으로 스스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화목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 고린도 교회의 배경

헬라본토(마게도니아)의 아테네 시와 마주 보고 있는 에게반도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상업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곳이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이방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교회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였다.

▶ 이스무스 경기

고린도에서 3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종목은 경마, 마차 경주, 권투, 레슬링, 음악, 시 경연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주신 은사로 겸손히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